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을 낚는 어부      성경: 누가복음 5장 4-11절

Tag: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5:4-1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많고, 그래서 가끔 언행이 엉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듬직하여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내용들이 나온다.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다. 안드레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전도한 셈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한 사람이지만 바위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마음이 변하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지 않았다. 베드로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하셨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신 사건이다. 말라리아는 매우 심한 열로 고통을 당하는 병인데 약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누워있어야 한다. 심하면 죽기도 한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며칠 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을 때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셨다.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크게 감명을 받거나 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왜냐면 몹시 피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이 배에서 내려오기도 싫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예수님의 말을 믿어보자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보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베드로 판단에 그리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어 주변의 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뱃사람 같았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럽게 여겨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용서를 구하였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1. 진리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특하였다. 그것은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타 다른 사람들의 성경해석과는 달리 성경 해석에 권위가 있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거나,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절대적이고, 확증적이고, 방향지향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깨어난다. 그 이전에는 내게 영혼이 있었는지도 잘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보면 영혼이 깨어나는 의식이 든다.

2. 삶이 정상을 찾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시면 삶이 정상을 찾는다.

-태양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모든 행성이 제각각 우주 공간을 떠다닐 수 밖에 없는데, 태양이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면 비로소 우주공간이 평안과 질서를 되찾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뭔가 어수선하고, 나쁜 일들이 반복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주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태운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정을 찾고 방향이 분명해지고 인생에 목적이 생긴다.

3.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거나,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시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로고스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여 (로고스 말씀의 개인적 레마화, 개인이 보편적으로 받는 것은 바람직함)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원래의 의미와 의도, 가치관과 원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 해당되는 복을 받는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레마의 말씀을 받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만 주시는 맞춤형 말씀과 계시가 있다.

-이때 말씀만 달랑 주시는 경우는 드물다.

-일상적인 교회생활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헌신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나라의 위기 앞에 깨어 기도하자

-북한발 위기가 점점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위기가 탈북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간이 늦추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 위기는 중대한 사건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위기는 그대로 남한의 헌정질서의 교란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북한과 남한은 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암세포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고통은 심해지고 생명은 위협을 받는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식 이념과 경제 민주주의

식 이념이 심겨졌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뒤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대 놓고 헌법보다 국민의 여론이 더 우위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전망.

1. 모두 자숙하고 정상화의 삶을 사는 것 -거의 불가능?
2. 여당 바람; 대통령은 모든 통치에서 물러나 조용한 임기 마감
3. 하야 - 야당의 바람. 이것도 불가능. 가능케 하려고 데모함.
4. 탄핵 - 거의 불가능 야당이 역풍 가능성. 재야권에서 할 가능성.  
-그러나 사안이 너무 가볍다.
5. 조선의 역습(조중의 역습) ;만약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과 유사함. 지리멸렬. 결국 영웅은 없었다.
6. 모두 아무런 대책 없음. 하나님께 호소할 밖에. 대통령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함.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